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9월 27일(주일) 제1067호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4일 창립기념주일, 6~8일 부흥비전집회, 9일 Celebration, 울어라 한반도여

창립기념주일인 다음 주일(10월 4일)부터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막 오른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축제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4일은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집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CGNTV는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2000선교본부는 융합선

교안내 부스를 설치한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저녁 7시30분에는 서빙고 본당에서 부흥비전집회가 열린다. 위험한 교회(화), 낮아진 교회(수), 연약한 교회(목)를 주제로 이재훈 목사가 설교한다. 캠퍼스에는 예배실황이 중계된다. 부흥비전집회 기간 동안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것이

좋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오는 셔틀이 운영된다. 18시20분부터 19시50분, 21시20분에서 22시까지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탑승하면 된다.

10월 9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메인행사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가 열린다. 이 자리

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 주신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공동체별로 마련된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재훈 목사는 성도들에게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창립30주년 축제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6일 이 땅

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창립됐다.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2011년 8월 1일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이재훈 목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2기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10월 4일, 약정서 기입하는 방식

10월 4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이다.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인 다음 주일(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온누리과 함께 만든 10년의 감동, 온누리과 함께 만들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하면 된다. 신규후원 또는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와 모

바일웹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CGNTV는 캠퍼스마다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기존 드림통(저금통)을 수거하고 새 드림통을 나눠줄 예정이다.

CGNTV는 2013년부터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정기후원 행사를 열고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796-2243

10월 4일은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는 날

사회선교부,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실시

10월 4일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이 실시된다. 이날은 승용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와야 한다. 캠페인 당일 서빙고는 장애인 동반 차량만, 양재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차량만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난 4월 12일에도 실시한바 있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의 적극적인 모습이 귀감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

매년 CGNTV 후원금 늘리는 도성해, 안수영 성도

도성해, 안수영 성도(부천 온누리교회)에게 CGNTV만큼 각별한 게 없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줬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결혼 10년 차였던 부부는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참석하게 됐고, 기적처럼 부부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20년 간 출석하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나왔다. 당시 교회에선 40일 새벽기도회가 한창이었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어려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CGNTV를 만났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이 360도 달라졌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CGNTV 정기후원자 도성해, 안수영 부부가 활짝 웃고 있다.

“40일 새벽기도회에 가고 싶는데 교회가 멀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어 방법을 찾다가 CGNTV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안방에서 CGNTV를 시청하면서 사람도, 삶도 변화되었어요. 하가훈을 통해 변화된 삶이 CGNTV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기 시작했지요.”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렸다. 날마다 은혜를 먹고 마셨다. 주시는 말씀도 남달랐다.

특히 남편 도성해 성도의 CGNTV 사랑이 각별했다. CGNTV VOD를 1년 동안 거의 매일 시청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보다 기다려졌다. 강의를 들으며 성경통독을 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술, 담배도 모두 끊었다. 아내 안수영 성도는 병상에 머물면서 CGNTV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

2007년에는 동경 러브소나타에도 참석했다. 처음 마주한 선교현장에서 CGNTV를 통해 귀한 복음을 전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피부에 와 닿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하나님이 CGNTV를 통해 이 부부를 만지시는 것이 분명했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중심에 CGNTV가 있었다.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배달부

“CGNTV는 영혼의 샘물입니다. 갈급할 때 틀면 항상 샘물이 샘솟지요. 유익한 콘텐츠들이 얼마나 풍성하던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방송입니다.”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 도성해 성도는 CGNTV가 뉴미디어와 IT를 선교의 선한 도구로 훌륭하게 활용해 미디어 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별새벽기도나 주요 집회때마다 홈페이지에 특별페이지를 만들고 접속하기 쉽게

팝업 창을 준비하고, 특히 선도적으로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어떤 도구로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발빠르게 접목시켜온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CGNTV를 한 마디로 감동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최고의 설교자를 발굴해 설교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안방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했다.

CGNTV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이 부부는 무엇인가 함께 하고 싶었다. CGNTV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CGNTV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정기후원자가 되었다.

“날마다 안방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CGNTV가 너무 감사해서 후원을 결정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사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부가 받은 은혜를 전 세계 이웃들도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CGNTV가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을 안다면 후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들은 CGNTV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과거의

선교는 선교사를 통한 개별 전도 방식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미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때에 CGNTV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서도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배달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도도 구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이 부부의 CGNTV 사랑이 참 대단하다.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이 부부는 해마다 CGNTV 정기후원 금액을 늘리고 있다. 줄이거나 멈추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계속 멈추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 더 CGNTV를 후원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이토록 CGNTV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녀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CGNTV 덕을 참 많이 봤다.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노트북만 열면 예배드릴 수 있었다.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녀 곁에 CGNTV를 통해 오신 하나님이 계셨다.

“병상에 있으면서 날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 덕분에 그 힘든 시간을 이겨

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제가 만나는 통로가 CGNTV예요. CGNTV는 손만 뻗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연결선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CGNTV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나누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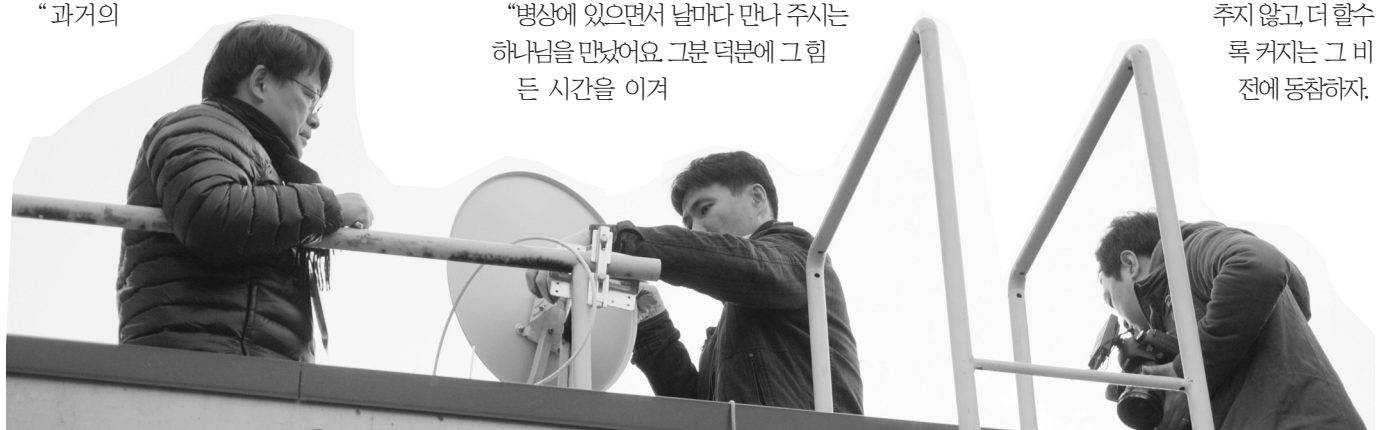
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

남편 도성해 성도는 언론인으로서 CGNTV에 바라는 것이 많다. 쏟아져 나오는 미디어 홍수 속에서 CGNTV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가 악한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으니 잘 분별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CGNTV의 역할 같아요. 언제나 찾으면 기다리고, 열어주는 CGNTV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CGNTV는 정기후원자들의 기도와 재정후원으로 운영된다. 세상에 없는 운영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CGNTV에 또 한 번의 기쁨 부으심이 필요하다. 10월 4일 우리 모두가 CGNTV 정

기후원자가 되자. 멈추지 않고 더 할수록 커지는 그 비전에 동참하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하며 사도를 세우다

사도행전 1:12~26

“질서가 있지만, 그것을 절대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는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 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열흘간 기다리게 했을까요. 기다림의 기간이 기도의 기간으로 변해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겸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성취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장차 도래하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기도해야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회의와 나눔보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4백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20명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운명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120명이 한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지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고 있었습니다”(14절).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남녀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

은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족보에 여인의 이름은 한 사람도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기도하는 무리들 중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도 남녀유별이 심했습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원칙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양쪽을 볼 수 있었지만 남녀는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시옷자 예배당, 기역자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이제는 기도하는 한 명의 여자 성도로 되돌아 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숭배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여성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분쟁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한명의 성도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일원으로써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 시대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교회의 일원일 뿐입니다. 모두 겸손하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의 동생들도 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기록은 매우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비판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기도제목과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뀐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과신이 그를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이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한 내용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료가 자살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정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일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새로운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만약 그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유다 사건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의 배신이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16-17절).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형제들과 나눴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성경의 예언대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과거의 어부가 아닙니다. 예언이 성취된 시각으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경과 상황 해석의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열리고, 상황이 보이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구약에 예언되었어도 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존 칼빈은 유다에게 닥친 일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변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선택을 미리 아셨기에 예언하셨을 뿐입니다.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탐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으로 부족하게 된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자처를 폐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했습니다”(20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굳이 유다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18).

베드로는 열둘이라는 완전수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연결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 과정이 그 모범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21-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 때까지 줄곧 함께 있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120명 중에도 분류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120명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리더십 그룹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음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서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조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한 사도의 이름을 열거한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을 갈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구분과 차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12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열두 사도가 있었고, 그 사도 중에 핵심이 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리더였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체계는 중요합니다. 질서와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무질서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합당한 위치와 합당한 능력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질서입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선교는 해외에서만

다문화국가의 효과적인 선교방법 ... 이주민에게 복음을
온누리M미션, 이주민 441명에게 세례주고, 선교사로 역파송

대한민국이 다문화국가로 변하고 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이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은 184만 명, 귀화자는 14만 8천 명이나 된다. 이주민들의 또 다른 이름은 찾아오는 선교지다. 평생 예수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교회가 그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낯선 땅에 온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품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전도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예수를 만난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방법인지 모른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인구고령화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옥스퍼드 대학)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한국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 불황이 야기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주민이 답이 되고 있다.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에는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될 것”이라

고 했다. 다문화가정을 이룬 인구도 75만 명이나 된다.

대한민국 이주민 역사

조선 시대 공식적으로 집계된 기록에 따르면 422년 전에 이주민이 왔다. 1583년 임진왜란 당시 스페인 신부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가 이주민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뒤로 1604년 포르투갈인 ‘멘테스’와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가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왔다. 벨테브레는 우리나라에 화포기술을 알려준 장본인이다. 그는 귀화해 조선 여자와 결혼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연’이다. 당시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고 도깨비나 귀신이라고 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천대하고 박해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부감이 사라졌다.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인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백인을 선호하고, 동남아인과 흑인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융화되지 못하면 문화적 대립이나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언어, 문화, 관습, 인종 등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갈등과 차별을 겪고 있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외국인고용조사’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60%가 월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OECD에서 발표한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15배로 OECD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다. 고국에서는 받지 못하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온다. 그들은 대부분 3D 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팔사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123명이 서독으로 떠났다. 돈을 많이 준다는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러 갔다. 1977년까지 파독 광부는 7,832명, 간호사는 1만 228명이나 된다. 당시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한국 직장인의 월급의 약 4배였다.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고학력자들도 광부가 되겠다고 줄을 섰다. 1인당 국민소득 70달러였던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것은 그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삶은 눈물겨웠다. 좁고 더운 갯도에서 연탄가루를 마시며 하루 종일 일했고, 간호사들은 덩치가 산만한 환자들의 피를 닦고 시신을 수습했다.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차별이었다. 우리가 겪은 아픈 역사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줘서는 안 된다.

이주민 선교의 유익, 필요성, 당위성

온누리교회는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안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온누리M미션이 있다.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을 섬기는 기관이다. M미션의 M은 이주민(Migrant)을 어머니(Mother)의 긍휼함(Mercy)으로 사랑하고, 선교(Mission)하여, 선교

사(Missionary)로 고국에 역파송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온누리M미션은 1988년부터 외국인 사역을 해 왔다. 각국 언어로 예배드리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18개 예배공동체에서 약 700여 명의 이주민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이 ‘스타트리 아카데미(Star Tree Academy)’다. 스타트리 아카데미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주민을 위한 긍휼사역도 풍성하다. 의료사역, 이마용사역, 상담사역, 쉼터 사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기관들이 방문해 섬기고 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안산 M센터에서 한글학교를 열고 있다. 이외에도 매주 안산역 노방전도 성탄절과 설날에 진행되는 맞춤형전도집회, 추석 이주민연합집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에는 서빙고와 안산뿐만 아니라 김포, 의정부, 평택, 인천 등지에 있는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축제다. 750명의 이주민들과 봉사자 150명이 함께 추석을 보낸다. 평소 교회에 관심이 없던 이주민들도 추석연합집회에 참석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주민 441명이 세례를 받았다.

온누리M미션에서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주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 8월 온누리M미션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 고국으로 역파송된 이주민의 가족과 이웃



목회칼럼 노규석 목사(온누리M센터)

맞이하는, 함께하는, 준비하는, 보내는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84만 명이나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진입했다.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마트와 지하철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해외 아웃리치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 평소에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곁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변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해외 아웃리치다.

온누리교회는 해외선교에 열정을 다하는 만

큼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1988년부터 이주민 선교를 감당해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긍휼사역 위주로 사역을 실시하다 2005년 말 안산에 온누리M센터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주민 선교를 시작했다.

먼저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언어 예배공동체들을 세워가고 있다. 예배공동체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를 감당해오고 있다. 현재는 안산과 서빙고를 중심으로 18개 공동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가정 자체 7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약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그들을 섬김성으로 섬기고 있다. 예배, 한글학교, 의료봉사, 다문화이동 교사, 전도 등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다.

올해 새로운 온누리M센터 건축을 시작했다. 2016년 3월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온누리M센터는 다양한 국가들의 예배공동체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지역사회와 다문화 자녀들을 섬기는 다문화교육 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예정이다. 다음세대들을 국제적 리더로 키우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500여개의 이주민 교회들에게 이주민 선교의 노하우와 소프트웨어를 전수하는 ‘이주민 선교 베이스’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 경기북부지역과 경상남도의 이주민 교회들의 요청으로 우리의 노하우를 전해주었다.

앞으로 이주민 증가와 더불어 이주민 교회들의 지원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M

미션은 안산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이주민 교회들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외국인 한 사람이 선교사 10명 이상의 역할을 감당한다. 온누리M미션은 그동안 함께 사역하고, 훈련받은 20여 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본국으로 역파송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현지인 사역자의 숫자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온누리M센터는 역파송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사도행전의 안디옥교회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이주민선교를 감당하는 온누리M미션은 맞이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준비하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14년 추석연합 집회.

국가별 예배 안내

	언 어	시간	장 소
서빙고 예배	네팔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402호
	러시아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301호
	몽골	오후 2:30	서빙고 선교관 401호
	아랍	오후 2:00	본관B 102호/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일본어	오후 2:20	서빙고 한동홀
	영어	오후 4:00	서빙고 본당
	중국어	오후 1:20	서빙고 경찬홀
양재 예배	영어	오전 11:30	도곡교육관
	불어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수원 예배	인도네시아	오전 11:00	수원 온누리교회
인천 예배	몽골	오후 2: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예배	몽골	오전 11:30	평택 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오전 11:00	평택 온누리교회

	언 어	시간	장 소
안산 예배	열방예배	오전 11:00	M센터 I 1층
	캄보디아	오전 11:00	M센터 I 4층
	몽골	오전 10:30	M센터 II 3층
	꿈땅	오전 11:00	M센터 I 3층
	필리핀	오후 3:30	M센터 I 4층
	태국	오후 2:30	M센터 II 3층
	네팔	오전 10:00	M센터 II 4층
	러시아	오전 10:00	M센터 II 2층
	스리랑카	오후 2:30	M센터 II 4층
	방글라데시	오후 3:00	M센터 II 2층
	베트남	오후 3:30	M센터 I 3층

72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이주민이 자신의 간증을 담은 영상을 부모에게 보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기도 하고,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캄보디아 남부지방인 캄벳에서 한국에 온 썸얼 형제는 지난해 온누리M센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해 여름 온누리M미션 아웃

리치를 가서 가족들을 전도했다. 올해 초부터는 프놈펜에 있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매주 2시간을 달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올해 8월에는 부천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썸얼 형제의 가정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기도 했다. 8월 말에는 온누리M미션 아웃리치 팀이 그곳을 방문해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불과 2년 만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캄보디아 오지 마을의 주민 100여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의 유익이요, 필요성이요, 당위성이다.

온누리M미션은 찾아오는 이주민들을 하나님 이 보낸 한 알의 밀알로 바라본다. 이주민들이 변

화되면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선교는 해외로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민 간증

나는 힌두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힌두교인이다. 매일 아침 힌두교 신들을 숭배한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종교에 의지하지는 않았다. 네팔에 있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교회에 가본 적은 없다. 내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불교가 부처로부터 시작되었듯이 기독교는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정도였다. 예수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었지만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나는 네팔에서 친구들과 술을 자주 마시며 인

생을 낭비했다. 그나마 평소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나는 2013년에 한국에 일하러 왔다. 그런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심한 외로움을 느꼈고, 우울증까지 걸렸다. 친구를 통해 내 고향 ‘타카푸르’ 출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고향이 그리워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 나의 사정을 들은 목사님이 온누리M미션 토요일예배에 참석해보겠냐고 권유하셨다.

토요일예배에 처음 참석했을 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았다. 공동체로부터 따듯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무척 기뻐다. 바리트 목사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려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정기적으로 네팔M센터 모임에 나갔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뒤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내 위주로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변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랑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아직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내 가족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매일 기

도하고 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은 독실한 힌두교인들이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시 보고 싶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M센터에 나오는 형제자매들과 한 가족이 된 것도 행복하다.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온누리M미션과 M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 레반타 라알 형제(네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 첫 예배

20세미만 발달장애인 위한 공동체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미취학 아동부터 20세미만 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공동체다. 지난 20일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첫 예배를 드렸다. 그곳에서 요셉이와 12인의 천사들(사랑부 교사)을 만났다. 요셉이는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요셉이네 가족들이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요셉이 어머니 김성희 집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요셉이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만 기다리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사랑부 교사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천 사랑부 첫 예배 현장을 기록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장애인을 위한 예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광고 한번 하지 않았는데 사랑부 교사로 섬기겠다는 자체 12명이 모였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사랑부 창립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다.

지난 20일 인천 사랑부가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특수는 사랑챔버가 맡았다. 사랑챔버 플러스 소속 부모들의 위심공연도 이어졌다. 서로의 이름과 한겨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렸다. 사랑챔버 단원의 부모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들은 보잘 것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기를 연주하는 훌륭한 단원들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이겨내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음악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네와 12명의 천사들

요셉이 어머니 김성희 집사는 간증하는 사랑챔버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있었다. 그녀는 요셉이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 요셉이는 올해 14살, 중학교 1학년이다. 수줍음이 많은 청

소년이다. 요셉이는 발달장애가 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발달장애는 개인차가 심하다. 원인도 다양하다. 운동기능 발달장애, 인지기능 발달장애, 언어기능 발달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자식 키우면서 힘 안 드는 부모가 없겠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 하루도 쉬 틈이 없다.

요셉이 어머니 김성희 집사도 그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셉이가 옷 입는 것, 행동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요셉이가 외출할 때, 예배드릴 때 마다 계속 권면해야 했다. 그녀의 소원은 요셉이와 두 손 잡고 예배드리는 것이었다. 오늘은 마침내 그 소원이 이뤄진 기쁜 날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생기기 전까지 요셉이네 가족들은 부천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집에서 인천 온누리교회가 가까웠지만 사랑부예배가 없어 아꼈 수 없었다.

요셉이는 유난히 드럼을 좋아한다. 드럼 소리에 맞춰 찬양이 시작되면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예배시간에 단상에 올라가거나, 박수를 친다. 요셉이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방해할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

▲ 임요셉 학생의 가정

▶ 사랑부 교사들.



한 예배가 절실히 필요했다. 바로 그 예배가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예배다. 인천 사랑부는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창립되었다.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신설되기까지 수고한 손길들이 많다. 특히 사랑부 교사로 헌신한 12인의 천사들의 수고가 많았다. 인천 사랑부 김애련 교사는 지난 5월 요셉이를 처음 만났다. 요셉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요셉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녀가 인천

사랑부에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정말 특별하다. 광고 한번 한적 없는데 교사 12명이 모였다. 어느 날은 찬양할 사람이 필요해 기도했다니, 찬양 봉사자가 나타났고, 또 어느 날은 물질후원이 필요해 기도했다니 물질로 섬겨주는 분이 생겼다.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천 사랑부가 씨내려갈 역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목회칼럼 정형권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내가 처음으로 장애인을 알게 된 것은 김기철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는 1980년 가을 스쿠버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머리를 바위에 찰는 불의 사고를 당했다. 그날 이후 전신마비가 되어 손가락 몇 개만 움직일 수 있었다. 목위를 제외하고 모든 신체부위가 마비되었다. 목뼈가 심하게 부러지면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

나는 김기철이라는 친구를 자주 찾아갔다. 휠체어를 끌고 다니고, 머리로 감겨주고, 그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왔다. 그렇게 김기철이와 함께 지낸지도 벌써 15년 정도 흐른 것 같다. 나와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는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형권아, 하나님께서 나를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만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알게 하려는 것 같아.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야. 더불어 살아가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

그는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한다. 그 친구는 요청할 때만큼은 정말 당당했다. 나도 그런 친구가 좋아서 밤이든 새벽이든 친구에게 전화가 오면 달려갔다.

그 친구와 함께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온 몸을 깨운 물로 샤워한 것처럼 내 영혼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도대체 이 감정이 무엇일까. 무엇이 나를 이토록 기쁘게 만들었을까. 친구와 함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이 감정을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인과 장애인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인천 사랑부는 기도로 태어났다. 장애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사랑부 창립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김애련 선생님이 내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함께 기도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사랑부를 위해 한 명, 두 명씩 인터뷰하며 모으기 시작했다. 매주일 오전 11시 30분에 하던 기도모임이 어느새 12명으로 늘었다. 특수학교 교사, 찬양 봉사자, 동화 구연 교사, 물질 후원자, 기도 후원자가 하나둘씩 늘어 12명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귀한 손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15년 동안 전신마비 장애가 있는 김기철이라는 친구와 함께 하며 깨

달은 사실은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친구를 위해 휠체어를 끌고, 머리를 감겨주었다.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물리적 도움을 주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비염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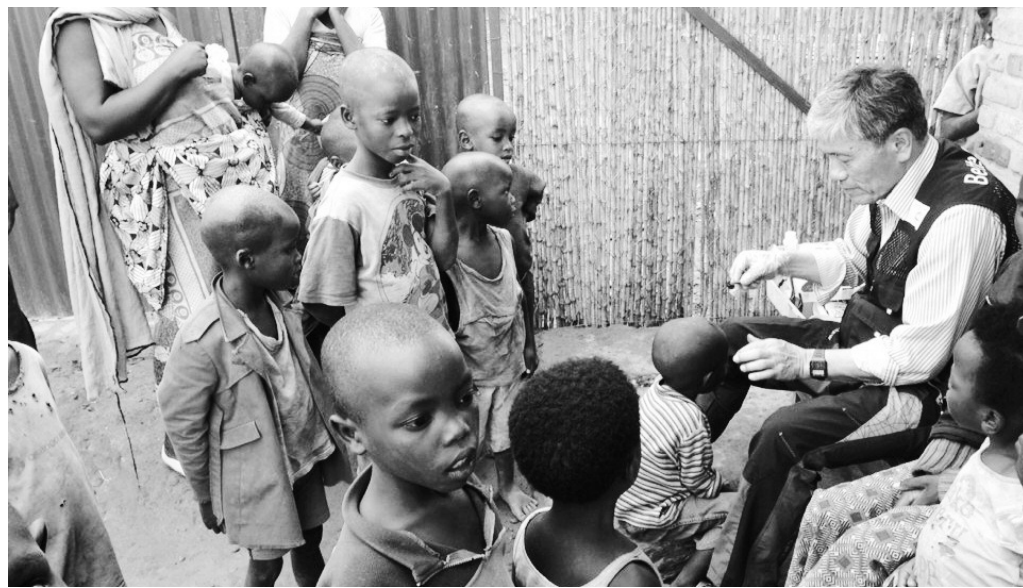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세상은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나누고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천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 그들과 함께 그려야 할 아름다운 미래다.

“나는 건축전문 선교사 박일구입니다”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지구촌에 교회, 학교, 병원 세우고, 재난 현장도 갑니다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4. 나는 선교사입니다



박일구 선교사가 르완다 어린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두피 피부병 치료약을 발라주고 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한번쯤 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현재까지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30년 동안 해마다 약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셈이다. 본지는 4주 동안 연재한 온누리 선교 30주년 특집의 마지막은 선교사 이야기로 장식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취재과정이 쉽지 않았다. 선교사들의 면면이 탁월하고, 누구하나 귀감이 되지 않는 선교사가 없어 인터뷰 할 선교사를 섭외하는데 애를 먹었다. 찾고 또 찾던 중에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교사가 한명 있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직접 지은 건축기술자 출신 선교사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박일구 선교사다. 그는 평신도 출신 선교사 1호격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지난 23일, 여기는 상도동에 위치한 TIM하우스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파송 선교사들의 숙소다. 이곳에서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박일구 선교사를 만났다. 초로의 신사는 선한 웃음이 인상적이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정겨움을 더했다. 눈을 반짝이며 선교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흡사 소년이 재만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처럼 개구지다.

그는 건축·전기 기술자로 전 세계를 누볐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다. 재난 현장에서 복구 활동도 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받은 은혜가 참 많아보였다.

돈이나, 예수님이나

박일구 선교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배를 타려고 준비 중이었다.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야겠다고 꿈을 꿔다. 그런데 군대 미필자라는 낙인이 발목을 잡았다.

해병대를 다녀 온 그는 배를 타는 꿈을 접었다. 전기기술자로 건설회사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 당시 중동에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박일구 선교사도 중동에서 6년을 일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아팠다. 왜 아픈지 이유를 모르니 더 답답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박일구 선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2%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아프니까 무시하던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가게 되더군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

고 나니까 귀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가 다니던 회사가 온누리교회 건축 공사를 따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다. 회사에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공사이니만큼 크리스천 직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며 그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건축공사 현장으로 보냈다. 그렇게 온누리교회를 자기 손으로 짓게 되었다.

“87년 3월이었어요. 그때는 가건물에서 예배드릴 때였는데 온누리교회 건축공사를 하면서 저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다. 공사현장에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지치지 않았다. 컷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모습을 하용조 목사가 보고 교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근데 봉급이 제가 회사에서 받는 돈의 반밖에 안되더라고요. 돈을 잡을 것인가, 예수를 잡을 것인가를 두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붙잡았습시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너털웃음으로 그때를 회상하는 박 선교사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때의 선택을 추후로 회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그는 건축 전문 선교사로서 세계 곳곳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웠다. 80년 아프리카 감비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스리랑카, 모잠비크, 중국, 몽골, 아이티, 르완다 등지에서 건축전문 선교사로서

사역했다. 그는 전기는 기본, 배관과 용접도 가능한 전천후 기술자였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선교지에 그야말로 안성맞춤 일꾼이었다. 각처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용병으로 활약했다.

“참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은 달라요. 나는 배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겠다는 꿈을 꿔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해주셨어요.”

감비아에 청소년유스센터를 세우러 갔을 때 박 선교사는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었다. 아내의 뱃속에는 3개월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아내가 출산하기 10일 전에야 한국에 돌아왔다. 많은 일을 끝내야 할 때 문이다. 그만큼 그에게 첫 선교지 감비아는 각별했다. 애착이 남달랐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감비아를 나오면서 다짐하고 헌신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에게 감비아는 선교사로서의 고향이었다. 뿌리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말라리아가 기승을 부리는 그곳에 갈 수 없었다. 아이가 크고 선교사로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1997년 감비아로 가기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감비아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2년을 있어야 했고, 스리랑카에서 13년 동안 사역해야 했다. 스리랑카에서 사역하는 틈틈이 그를 필요로 하는 중국, 몽골, 르완다, 아이티까지 날아갔다. 모잠비크에서는 2년 동안 온누리상업고등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학교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모잠비크에서는 온누리상업고등학교를, 스리랑카에서는 온누리국제학교를 섬겼다. 특히 스리랑카 현지인 목회자들의 자녀 11명을 데려와 무려 8년을 키웠다. 이른바 트리플 사역이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Spark for Jesus’라는 동아리를 3년 동안 운영했다.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었다. 르완다에서 보건소를 지을 때는 그곳 아이들의 티 없는 모습에 반하고 말았다. 박 선교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알사탕을 주고, 껌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솜씨지만 이발해주는 것 정도였지만 그래도 좋았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박 선교사의 선교 열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10월 중에 감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드디어 감비아에 간다. 그곳에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다. 설레는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일구’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 박 선교사가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 친하게 지내던 현지인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박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다고 했다.

“감비아의 일구가 얼마나 멋진 청년이 되었는지어서 보고 싶어요.”

그는 선교사로서 보기 드물게 2013년 장로장립을 받았다. “장로님이라고 부를까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까요?”라고 묻자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선교사라고 불러 주세요.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온누리 사회선교부, ‘청년 부채 해결’ 돕는다

10월 20일까지 신청 ... 채무해결 돕는 행정절차 제공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실업률은 10.2%, 청년실업자 수는 44만 9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상 최대치다. 불완전 취업과 잠재적 구직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15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들의 부채(負債)문제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4번째로 대학등록금이 높은 나라다. 대학등록금 내려고 받은 학자금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취업을 못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들이 부채문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부채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외부 재정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년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한다. 1:1상담, 부채문제 정밀진단, 해결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시, 실행지원 및 사후 관리상담 등을 통해 빛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캠페인이다. 사회선교 분과위원 정운오 장로와 청년부채 해결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운오 장로
(사회선교부 분과위원)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커녕 생계비 마련도 막대한 상황이지요. 아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고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도 문제지만 돈을 빌린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재정악이 없어 생긴 빚도 많습니다.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은 말 그대로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교회가 도와주는 캠페인입니다.”

교회가 왜 청년들의 부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청년부채 문제에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캠페인에 참석해봤고요. 그런데 그 캠페인에서는 정

치적인 느낌이 풍기더군요. 청년들을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는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이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청년들을 품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부채 문제는 탕감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청년들의 부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자는 교회가 청년들의 빚을 대신 탕감해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부채 탕감이 아니라, 부채의 울무에 걸린 청년들에게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길을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사회선교부 웹사이트([http://sjmonnuri.org/lov-](http://sjmonnuri.org/lov-ing-u-debt)

ing-u-debt)에서 10월 2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 중에서 30명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1:1 상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재정 상태와 심리 상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과소비 일수도 있고, 도박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대신 빚을 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후관리도 할 것입니다. 사이버카페를 열어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처치(법률적 도움, 행정적인 절차 등)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은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일종의 회복사역입니다. 부채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위축된 심리상태도 회복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전문가 칼럼 이승민 차장(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가구당 1억 원에 해당하는 빚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은 가계부채 문제해결에 호의적이지 않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물가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의 부채다. 대학등록금을 내려고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지난 6월 누적기준 100만 명이 넘었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성공한 청년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9명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채무자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과 취업에는 성공했어도 연봉이 대출금 상환 기준인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56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학자금 대출자 37만 3천명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에 못 미친 인원이 22만 5천명이다. 60%에 달한다. 미상환 대출금은 개인부채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된다. 취업이 되더라도 가처분소득을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빚 문제 해결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사회 시스템의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부채가 있는 청년 중에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의 재정상황과 소비성향, 심리상태에 대해 제대로 진단받은 적 없고 빚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를 뿐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다보니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빚을 해결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개인이 빚 문제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빚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밝고 건강하다. 가까이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다. 빚은 죄가 아니다. 구조 받아야 할 재난 또는 치유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서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을 시작한다. ‘빚으로부터 자유를(freedom from debt crisis)’이라는 주제로 외부 재무상담 전문기관과 함께 부채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물론, 주변 사람

들의 추천을 받은 청년들까지 도와주려고 한다. 이 캠페인은 1:1 상담방식으로 진행된다. 철저하게 비밀보장 된다. 신청서류에 인적사항, 재무상황 및 부채명세 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록해 제출하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정기적으로 솔루션 실행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할 수도 있고, 사이버 카페에서 익명으로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단순한 재정관리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경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빛진 사람은 빛쟁이의 종이 된다”(잠 22:7)고 말하고 있다. 빚은 죄는 아니지만 분명 명에다. 빚이라는 명에 갇힌 청년들에게 이번 캠페인이 큰 힘을 줬으면 좋겠다.

빛은 죄가 아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홍지아 성도(치앙마이래빗)
(치앙마이, 그녀를 안아줘) 저자

새 집을 구해야겠다. 그 생각이 든 건 오늘 아침이다. 방콕에 산지 벌써 1년, 이 콘도에 산지도 1년이다. 태국에서는 아파트나 원룸 형태의 집을 콘도라고 부른다. 우리 집은 원룸으로 직사각형 방에 욕실과 작은 베란다가 딸려있다. 부엌은 없다. 태국 사람들은 외식을 좋아한다. 일 년 내내 먹거리가 풍부한데다 외식이 더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자마자 방콕으로 날아온 우리에게 이 콘도는 첫 신혼집이었다. 원목으로 만든 예쁜 가구들이 맘에 쏙 들었는데, 한개미가 생기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바닥은 시원한 타일이고 바람도 잘 통한다. 우리 베란대에 작은 주방도 꾸몄다. 거기서 감치도 만들고 녹두를 갈아 꼭발시키기도 하고, 어설픈 솜씨로 떡볶이도 끓여냈다. 결혼 첫 해의 추억을 보낸 이곳을 떠나자니 아쉽지만 너무 좁다.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태국에는 부동산중개소가 흔하지 않다. 대부분 외국인을 위한 것이고, 태국 사람들은 집을 팔거나 세를 놓겠다고 직접 광고를 내간다. 사실 태국어만 할 수 있다면, 임대시장은 한국보다 형편이 낫다. 보증금이 고작 두세 달치 월세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이 콘도만 해도 월세는 15만원 보증금은 30만원밖에 안 된다. 집을 부수지만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콘도인이라 전기세는 유닛(unit)당 200원 정도, 한 달에 평균 1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냈다. 물세는 유닛당 750원, 우린 평균 3500원 정도 냈다. 경비원도 있고 편리하지만 좁다는 게 문제다. 새 집은 타운하우스라면 좋겠다. 타운하우스는 똑같은 형태의 이삼 층짜리 집이 수십 채 붙어 있는 형태다. 단독주택보다 월세가 잘 나오는 편이다.

잘할 수 있겠지? 고작 1년 배운 태국어로 관창을 까 싶기도 하다. 열심히 사전과 필요할 단어를 확인했다. 보증금은 ‘마짌’ 월세는 ‘카드안’ 계약은 ‘싼야’ 등을 읊조렸다.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얼른 가방을 챙겨 나갔다. 목표지는 남편이 다니는 학교 에이백대학(ABAC) 뒤편 타운하우스단지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서 돋보기를 들어댄 듯 햇볕이 나를 괴롭혔다. 콘도 앞 노점상에서는 양념한 닭다리를 숯불에 올려두고, 절구에 그린파파야채를 넣어 솜뽕을 빻는 중이다. 벌써 손님들이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

“빠이 나이?” 어디 가냐고 묻는 인사다.

“빠이 투라(별일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닭다리구이 앞에서 살짝 정신을 놓을 뻔했다. 먹고 가고 싶지만, 더 더워지기 전에 동네라도 둘러봐야 한다. 인사를 하고 콘도 뒤로 돌아 클링(개천길)로 내려갔다. 지저분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어둡한 방안에는 아이가 천 그네에 매달려 잠들어 있다. 차마미다 화분과 새장들이 달려있다. 아름다운 열대 꽃들과 새들 덕분일까. 초라한 셋집이지만 묘하게 평화롭다.

에이백대학으로 가는 쪽문을 지나가니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다 똑같은 구조에 대문들이지만 사는 이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 1층은 보통 길쭉한 거실이고, 2층에는 방 두 개와 욕실이 있다. 부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월세를 준다는 표지판

앞에 가서 메모를 한 후 전화를 걸었다. 역시 월세가 우리 콘도보다 훨씬 비싸다. 이곳은 월35만원, 저긴 40만원. 몇 군데는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쾌쾌한 냄새는 둘째 치고 집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다. 태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작은 사당을 만들어 집 마당에 세운다. 원래 그 땅에 살던 귀신들을 위한 새 집으로 세울 때도 승려를 부르고 아침마다 음식과 꽃을 공양한다.

그때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길가 코너에 있는 하얀 집이었다. 다른 집보다 산뜻해 보였다. 문 앞에는 마름나뭇가 자라고 있었다. 마름이 ‘니움(흥미롭다)’이라는 말과 비슷해서인지 그 나무가 있는 집

은 인기가 좋았다. 무엇보다 귀신 사당도 없다. 집 안도 괜찮아 보인다. 월세를 준다는 표지판 앞에서 웬지 이 집이 내가 찾던 집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알로” 하는 목소리에 미소를 짓는다.

〈편에 계속〉

에? 아드님이 목사님?



바오 만난 집주인



목회칼럼 홍성인 목사(영어예배)

나는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갔다. 인생의 절반을 호주에서 보냈다. 나의 청소년 시기는 다문화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청소년기에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1년 반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단기선교를 했다. 선교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나의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 한국문화와 한국어도 어느 정도 알고,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지 않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한국교회와 문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방법을 배웠다. 장기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했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영어예배 친구들과 목사님, 간사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집도, 은행계좌도, 핸드폰도 없었을 것이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울고 웃은 실수와 오해들이 많았다.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이 내게 “고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제 이름은 Matthew Hon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No, I’m Matthew. 저는 고객님의이 아니라 Matthew Hong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님의?”

본향으로 가는 길

“No, My name is Matthew Hong!”

내게 하는 질문마다 고객님의이라 부르는 직원에게 내 이름을 말해주다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갈 뻔했다. 또 한 번은 호칭의 의미를 잘 몰라 한 달간 친구를 ‘처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언어의 한계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1988년 호주로 이민을 떠난 부모님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에 살면서 처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을 두고 낯선 나라로 떠난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을까? 부모님은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호주로 이민을 떠났지만, 영어를 몰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없었다. 3D업종은 마다않고 하셨다. 청소, 자동차 수리, 생닭 판매, 호주 사막의 운송업까지 다양했다.

우리는 삶을 근심의 연속이라 생각한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근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문제에 대한 어려움으로부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주어진 순간적인 과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천국을 더 소망해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

한국도, 호주도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을 쫓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완수하자. 우리의 본향으로 함께 돌아가자.



▲일본어 예배부 가족들과 함께.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10월 10일 선교포럼, 11일 감사예배

일본어예배부가 창립된 지 25년이 됐다. 일본어예배부는 뜻깊은 날을 맞아 일본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10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일본선교 포럼이 개최된다. 일본선교 포럼은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보고, 일본 선교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패널 토의가, 3부에서는

홈커밍데이(Homecoming Day)가 개최된다.

10월 11일 오후 2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는 일본어예배부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부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는 교회 초창기부터 일본선교에 집중했다. 1985년 온누리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린 지 3개월 후인 1986년 1월 5일 번째창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했다. 그때부터 일본 선교의 기

발을 올렸다. 1989년에는 일본 어린이들을 초청해 토요학교를 시작한 일이 동부 이촌동 인근 일본인 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일본인 어른들도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일본어예배부는 1990년 10월 7일 출범했다. 현재 약 200여 명의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매주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오후 2시 20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무료공개강좌

10월 12일, 26일, 11월 2일 서빙고 믿음홀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무료공개강좌가 열린다. 10월 12일과 26일, 11월 2일 저녁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무료공개강좌에서는 ‘성경, 체질,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류모세 선교사가 강의한다. 동서양의 체질론, 체질로 풀어본 성경인

물, 성령과 기질, 체질에 따라 신앙색깔도 다르다.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 필상체질론과 사상체질론의 유사성과 차이점, 체질에 따라 달리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예방법,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녹용 먹고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강의가 이어진다.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무료공개강

좌는 동일한 강의가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원하는 날짜에 등록 가능하다. 010-4902-1022로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하면 된다. 5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류모세 선교사는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 선교사, 성경교사,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축하합니다

대청 9월 세례자

■요셉
임규화 870419

■SNS
양기쁨 920601
최병현 900429

■허브
이주연 960111
조은채 950509

김도연 950810
이정미 910220
▷ 입교
류수아 950316
박새미 880409

온누리 예배학교 참가자 모집

서빙고 주일반 3기 10월 11일까지 신청

온누리 예배학교 서빙고 주일반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 예배학교 서빙고 주일반 3기는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빙고 근린공원 전시장에서 5주 동안 진행된다.

온누리 예배학교에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 순서

의 의미, 예배와 삶, 결단과 헌신 등을 주제로 예배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예배사역본부장 김영진 목사가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아이스쿨이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142-9167

/ 김미림 기자

NGO 더멋진세상, 한국뉴욕주립대와 MOU 체결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 함께 펼치기로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대표 이재훈)과 한국뉴욕주립대(총장 김춘호)가 MOU를 체결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사노고 마을에서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를 함께 펼치기로 한 것.

지난 24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NGO 더멋진세상과 한국뉴욕주립대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두 기관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는 농업, 교육, 농업, 보건, 비즈니스, 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열악하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다. 이에 한국뉴욕주립대는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전력공급으로 구성하고 한전과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 NGO 더멋진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질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과 한국뉴욕주립대가 '지구촌 희망 프로젝트' MOU를 체결했다.

‘Why Mission?’ 토요반 개강

10월 10일 개강, 7주 동안 서빙고 한동홀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와이미션) 토요반이 10월 10일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 10분까지 진행된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 구약과 신약 성경과 선교, 세계 선교 역사의 현황, 한국 선교의 역사, 타문화 이해, 온누리 선교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6만 원이다. ‘Why Mission?’은 지난해부터 암작자 필수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4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오이타 기·도·제·목

- 9월 28일(월) 러브소나타 오이타 집회를 통해 부흥이 일어나도록
- 9월 29일(화) 오이타 지역의 교파와 교단이 서로 협력해 하나 되도록
- 9월 30일(수) 성령에 의한 부흥과 예배의 갱신이 오이타 교회들에 일어나도록
- 10월 1일(목)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도록
- 10월 2일(금) 전도 대상자들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꼭 올 수 있도록
- 10월 3일(토)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더하도록
- 10월 4일(주일)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2015년 울러라 한반도여! 요일별 중보기도제목

- 9월 28일(월) 온누리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 9월 29일(화) 향후 3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로운 꿈을 꾸도록
- 9월 30일(수) 온누리교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도록
- 10월 1일(목)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에 순종하도록
- 10월 2일(금) 비전교회와 선교사들이 새 비전에 함께 동참하도록
- 10월 3일(토) 집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 10월 4일(주일)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와 통곡과 간구의 영이 임하도록

제1067호 | 2015년 9월 27일(주일)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성민, 이희나 부부

아내의 마지막 눈물이기를

“젊은부부학교 신청해볼까?”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에 아내가 수락했다. 그렇게 우리는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했다. 사실 젊은부부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무작정 참가했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다.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젊은부부학교의 일원이 되었다.

정적을 깨는 벨소리가 울렸다. 조장님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어색했지만 기대감이 생겼다. 조장인 김선율 형제님에게 당부의 말을 건넸다.

“제가 곧 두 돌이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저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해서 걱정이예요.”

그랬더니 조장님은 아들이 다섯이란다. 깜짝 놀랐다. 조장님 부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교육이겠구나 싶었다.

나는 젊은부부학교의 모든 일정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딸 예은이가 A형 독감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2주차에 참석하지 못했다. 만삭인 아내에게 독감이 옮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좁은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예은이를 보듬는 아내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한번밖에 만난 적 없는 조원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도 감사했다.

드디어 가평에서의 1박2일이 다가왔다. 집 밖에만 나가면 힘이 솟는 아내 덕분에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엠터를 가는 대학생들처럼 내 마음이 들

떠 있었다. 사실 가평으로 떠나면서 우리 부부에게 약간의 위기가 찾아 올 뻔했다. 출발이 지연된 상황을 아내 탓으로 돌리다 평소 같았으면 다툼을 했겠지만 이날은 젊은부부학교를 가는 길이니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젊은부부학교의 하이라이트는 내적치유 강의였다. 대학시절 DTS를 하며 내적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상처를 끄집어냈다. 나는 내적치유는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결혼하고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있었다. 감정 기복이 없는 나인데 아내의 손을 마주잡는 순간 가슴 속에서 복받친 감정이 올라왔다. 아내를 생각하니 억울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교차했다. 내가 마치 아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이었다. 나로 인해 힘들어했을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부모를 떠나지 못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게을렀고, 정직하지 못한 내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힘들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아내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정직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내 어깨를 적시던 아내의 눈물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에게 감사드렸다. 결혼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했다.

■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현아 성도(가정사역공동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때까지

긴 장정 끝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쳤다.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와 새신자과정에 이어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완주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불교를 믿던 집안이었다. 그래서인지 교회와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의 상사가 하가훈을 추천해줬다. 여행한번 가는 센치고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사실 나는 남이 권유한다고 해서 잘 수락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가훈에는 가게 됐다.

하가훈에 참석하는 내내 큰 감동을 받았다. 계속 울음을 터뜨렸다. 남들이 우리 남편을 나쁜 사람으로 봤을지도 모른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자신도 태연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다. 하가훈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 새신자 과정과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도 수료했다. 일대일 제자양육 숙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인 내가 양육자를 만나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도 고민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 숙제는 정말 어렵게 느껴졌다. 일대일 제자양육 숙제를 시험공부 하듯 열심히 했다.

양육자님은 교회에 처음 온 나를 배려해주셨다.

항상 부담 갖지 말고 오라며 격려해주셨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어떻게든 마치려고 최선을 다했다.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도 많았다. 몰랐던 말씀이 나오면 성경책을 펼쳤다. 그 과정이 힘들긴 했어도 매 순간 감사로 기도하고, 평안함이 깃들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내 삶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하나는 세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고 나니까 지인들이 내게 세례 받을 것을 권유했다. 세례 받을 것을 기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의 구원이다. 내 자녀들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다. 가족 구원의 결실이 다. 너무나 행복했다. 하나님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움직이고 계셨다. 내 기도제목도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생각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앞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려고 한다. 가족 구원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도할 것이다.

■ 하트스쿨을 섬기며



/ 김선아 성도(하트스쿨 사역자학교)

메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어느 날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광고를 접하게 됐다. 단숨에 하트스쿨 사역자학교에 등록했다.

하트스쿨 사역자학교는 내가 알던 것과 사뭇 달랐다. 단순한 놀이, 율동, 훈련과정으로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알짜배기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시간을 통해 회복을 통한 휴식을 주셨다. 하트스쿨을 섬기는 교사들을 보면서 섬김의 자세를 배웠고, 진정한 사랑도 나눴다. 선한 예배자 모습 같았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무거운 멍에도 아니었다.

하트스쿨 사역자 학교를 마쳐야 하트스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나는 하트스쿨 사역자 학교를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어린이 하트스쿨을 섬겼다.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변화가 생겼다. 하트스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장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다.

하트스쿨은 부모와 아이들이 12주 여정을 함께 한다.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다. 하트스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과 부모 간의 소통 부재였다. 하트스쿨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자리였다. 집중하지 못하던 아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되찾았다. 아이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트스쿨 12주차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다. 부모들의 간증을 듣고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창대한 땅을 주시고, 후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주셨다.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트스쿨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배우고, 다음세대의 소망과 소명을 발견하는 곳이다. 다음세대에게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다음세대들은 세상과 가정, 직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성장해야 한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하트스쿨이 우리 삶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면 온전한 사랑과 진심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하트스쿨 전사들에게 사랑과 진심을 전하는 사랑전도사가 되기 위해 기쁨으로 걸어갈 것이다. 하트스쿨을 늘 중보기도 할 것이다.

■ 세례간증



/ 강성진 성도

손 잡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셨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나와 같이 교회에 가고 싶었던 아내의 바람을 애써 외면했다. 동업을 하던 사람의 계속된 권유를 못 이겨 교회를 다녀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부부는 경기도 안성에 산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 아침이 바쁘다. 나는 오랜 시간 운전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늘어갔다. 그 무렵 동업을 하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까지 옮겨갔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싶어 하는 아내와 달리 나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만 교회에 나갔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지만 사람일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오만을 부렸다. 주일날 아내의 운전기사 역할만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다. 선하고 바르게 살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원망할 곳을 찾으며 방황을 했다. 회사 경영 또한 악화되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상황도 나빠져 마음이 황폐해져 갔다.

주변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문득 지금은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아니고 나의 오만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그동안 오만함 때문에 감사할 줄 몰랐고, 감사할 줄 몰라 절제하지 못했던 내가 달라졌다. 나는 해가 뜨는 것이 불안해 한번 깨면 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 불안이 사라졌다. 다행히 아내도 치료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회사 상황도 좋아졌다. 설령 나빠지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다.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았다. 더 겸손해졌고 나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려움 가운데 홀로 서있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린다.



장로칼럼 박흥선 장로(서초D공동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자

영화 스타워즈의 열혈 팬이 아니더라도 두 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관람한 사람이 라면 “May the Force be with You...”라는 대사를 기억할 것이다.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이라는 뜻 정도로 해석된다.

이 대사는 제다이(Jedi)라는 기사단이 사용하는 작별인사다. 나는 ‘포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 인사말을 하는 인물은 자신이 ‘포스’를 사용하는 제다이(기사단) 신분이라는 것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몇 해 동안 네팔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들의 인사말이다. “나마스떼”라는 인사말이었는데 요가 강습 시간에 흔하게 들던 말이었다. 이 말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혹은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듯이 네팔 사람들은 “나마스떼”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네팔의 크리스천들은 “나마스떼” 대신 “자이머시”라는 인사말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주님께 영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자이머시’라는 인사말을 통해 힌두교 중심의 다신교 나라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다.

스타워즈의 “May the Force be with You”와 네팔 기독교인의 인사말 “자이머시”를 떠올리면서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종교를 개인의 선택

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부르짖는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자칫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지루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거나 그들 구성원 중 한 명일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덤지도 차갑지도 않은(예 3:15)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 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적어 보낼 때 꼭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안부로 시작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일상적이지만 필수적인 인사말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서점도 있고,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기독교 방송국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성경을 읽을 때만 사용한다. 인사말이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인간관계와 의식 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해진지 130년이 넘었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스타워즈의 제다이나 네팔 기독교인처럼 우리도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인사말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 ‘샬롬’이나 ‘할렐루야’ 같이 우리에게만 친숙한 외래어보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나타내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강숙경 권사(OCC공동체)

매일이 새롭다

무겁게 느껴지는 서빙고 권사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크고, 서빙고 권사회장으로 섬기면서 감사한 일도 참 많다. 나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30년을 살았다. 세월의 무게만큼 늙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부끄러울 뿐이다. 올해 온누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이제 지긋한 성년이 되었다. 나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이즈음 서빙고 권사회의 사명을 이야기 하고 싶다.

권사들은 스스로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가정과 소속 공동체에서 기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교회의 각 기관과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중보기도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한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권사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기쁘게 섬겨야 한다. 교회의 어머니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지난 학기에 ‘좋은 시어머니, 장모 스쿨’이 개강했다. 신앙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했다. 스쿨을 시작할 때마다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 시위는 아들이 아니다”를 매일 복창했다. 이 강의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줬다. 며느리에게 잘해야 손자손녀들이 우리를 잘 섬긴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 맞이하는 며느리와 시위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서로의 다름

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지혜롭게 품을 때 아름다운 가족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세대 간의 벽이 있다는 것에 또한 번 놀랐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실패에 대해 나눴다. 우리가 대면한 현실에 맞게 슬기롭게 변화하도록 격려하는 장이었다.

이번 학기에는 ‘옛 것을 벗고 새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이정선 사모님의 내적치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권사님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심령이 뜨거워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두가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구한다. 모두가 새로워지는 권사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권사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멋진 권사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장례사역을 섬기면서 얻은 교훈이 많다. 인생의 유한함을 재확인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 순종해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간 젊은 가장, 한 평생 자식을 돌보면서 죽는 순간도 홀로 맞이해야만 한 홀어머니, 사고 난 아들의 죽음 앞에 황망하게 서있는 노부모 등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다. 설혹 이 땅에서 광야같이 살아도 천국을 찬양하며, 천성 길에 이르도록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남겨진 유가족들도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위로받기를 함께 기도한다. 서빙고 권사회에는 매일 다른 이야기가 있다.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매일이 새롭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J4U공동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묵상’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묵상이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깊은 묵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까. 묵상은 저들에게 가장 중대한 행위이며, 인생을 최적화시키는 성공의 비결이다. 그럼에도 분주하고 번잡한 도시의 일상 속에서 묵상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다. 열방을 향해 나아갈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묵상이다.

기독교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교리, 기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도 모두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말씀은 능력이며, 생명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도 말씀이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logos)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역시 진리(logos)의 영 즉, 말씀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

묵상은 바로 말씀을 다루는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은 단순한 지적 행위만이 아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묵상은 말씀을 먹

는 행위다. 다윗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며, 그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시편에서 사용한 묵상이라는 단어는 고양기와 동물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였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경험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두루마리)을 먹이시며 “너의 배를 이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신다. 그것은 에스겔의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묵상은 말씀을 먹는 것이며,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맛이라는 굉장한 즐거움도 선사한다.

온누리교회는 큐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시작했다. 온누리교회의 온누리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이것을 작은 종교개혁과 같은 신선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중세 암흑기를 뚫어냈던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기록된 말씀을 평신도의 손에 들려준 것에서 시작되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을 먹었고, 성장하고 자랐으며, 힘 있게 사역했다. 이러한 문화는 매우 소중한 유산

이며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새벽예배 홀리스타를 매일 진행하고 있다. 강남 홀리스타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조별모임을 실시한다. 10월에 시작될 하반기 조별모임을 준비하면서 조장들과 함께 묵상훈련을 하고 있다. 한층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다.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홀리스타와 공동체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의 강력한 힘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혹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2015년 가을이 되기를 소망한다. 회복과 부흥을 향해 나아갈 온누리교회의 향후 30년 역시 깊은 묵상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묵상을 통한 승리의 외침이 벌써 들려오는 것 같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기도하며 사도를 세우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도의 조건

사도들이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셔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를 부르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선출한 적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이 옳을까요. 양쪽 다 옳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기준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기준은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의 처음부터 승천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사도를 뽑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든 사람을 세우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이라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사는 동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다고 공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에는 기도 가운데 세운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라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틀을 만들고 틀과 틀이 부딪히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율법이라는 틀도 사도행전 15장에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폐지시키는 데 우리는 스스로 만든 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유동적입니다. 유기체보다 융통성이 있는 유동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유동체와 같아야 하는데 사도들이 세운 조건에 바울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방하는 것은 인간적인 조직체 틀에 갇힌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일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암브로시우스라는 말라노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북 이탈리아 총독으로 임명받아 갔습니다. 감독을 세우는 선거에서 교인들이 싸울까봐 감독하러 갔다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차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세례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사제로 안수를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감독은 그 지역 교회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속성과정으로 하루는 세례를 받고 다음날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날에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말라노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틀을 없애야 합니다. 아닙니다. 틀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교회가 틀에 갇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조직의 리더가 되고,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맛디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맛디아가 뽑혀서 그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습니다”(23-28절).

그들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시험과 갈등의 원인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상하게 했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세워지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받아들이고, 세우는 과정이 없으면 사도행전적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도 가운데 한 마음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려오고, 세상적인 분열과 다름으로 얼룩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지만 틀을 절대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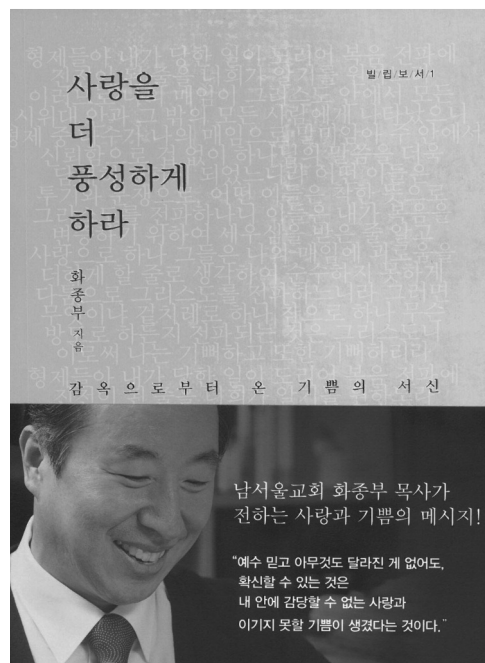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라〉
화종부 저 | 두란노 | 13,000원

이 책은 2012년 화종부 목사가 남서울교회에 부임해 주일강단에서 전한 빌립보서 설교를 엮었다. 화종부 목사는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이라고 말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기쁨, 구원 받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는 기쁨 등이 차고 넘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예수님을 만났어도 힘들고 지치고 좌절을 경험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화종부 목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빌 1:9).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 누군기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샘솟는다. 삶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 흐르게 해준다.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노먼 라이트 저 | 두란노 | 12,000원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상처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누구나 상처와 함께 산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다. 몸에 난 상처와 달리 마음에 난 상처는 치료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전이다.

트라우마 전문가인 노먼 라이트 박사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준다. 노먼 라이트 박사는 깨어진 나와 마주하고, 관계와 마주하고, 자녀를 부둥켜안고 고 권면한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슬픔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회복이 빨라진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한다. 이 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상처 회복이 그 때 시작된다.

